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9:14-17  
2026 년 8 월 9 일 오전 11 시

##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주여 도우소서 >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다윗 왕조의 나라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며, 수많은 백성은 포로가 되어 떠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갈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1 년이 지나고 5 년이 지나고, 10 년이 지나고 20 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을 직접 본 적조차 없는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부모에게서 듣던 고향 시온은 어느덧 기억 속의 땅이 되어 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백성의 마음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라가 무너지고 성소가 파괴된 현실 앞에서 시온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시편 74:1)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시편 74:9). “얼마나 오랫동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것이 포로 된 백성의 절망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이고 내일도 바벨론입니다. 올해도 포로이고 내년에도 포로입니다. 눈을 들어 보아도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들의 고통은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패배한 민족이 당해야 했던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 1. 잊혀진 것 같은 포로의 절망

고대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니다. 한 나라의 승리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로, 패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와와 성전마저 불타 버렸으니, 승리한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시편 79:4) 조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느냐? 왜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해 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시편 79:10)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단순히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된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니다. “하나님, 보여 주십시오. 주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으며, 포로들은 여전히 타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 2. 바벨론 강변에서 흘린 시온의 눈물

어느 특별한 날,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불타 버린 성전 그리고 살해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애곡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편 137:1).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래할 이유도, 노래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노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시편 137:2) 손에서 수금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그만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시편 137:3). 자신들을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합니다.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 보아라.” 이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시온의 노래는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리던 거룩한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그 찬송을,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황폐하게 한 자들 앞에서 한 곡 불러 보라는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그것은 노래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헤집는 조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시편 137:4)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불러 보라고 합니다.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우는 노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룩한 시온의 노래를 정복자의 유흥거리로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렸고, 노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탄식이 흘렀으며, 찬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바벨론이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땅을 빼앗았지만 시온에 대한 기억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금은 나무에 걸려 있었지만, 시온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붙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기에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고, 볼 수 없기에 예루살렘은 더욱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맹세하듯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시편 137:5)

얼마나 절절한 고백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려라.” 수금을 타던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다시는 노래하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더욱 강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시편 137:6)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도 좋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다시는 노래하지 못해도 좋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시편 137:8). 그러나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것은 주전 586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주전 539 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려 47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7 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여전히 폐허였으며, 백성은 여전히 타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3.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백성

마침내 시온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이사야 49:14).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런데 바로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15 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젖먹이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는 자기 자식을 잊는 어머니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이사야 49: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은 자기 눈앞에 펼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손을 펼칠 때마다 보이고, 무엇을 하려고 손을 내밀 때마다 다시 눈앞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그렇게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4-17)

시온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벽이 아니라 폐허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질 성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오늘’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내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땅에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복은 성벽만 다시 세우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와 성을 가득 채우는 회복이었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혈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17 절). 여기서 “빨리 걸으며”라는 말씀은 시온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한쪽에서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온을 혈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망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